



## 사

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나이나 현재 상태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직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동료 직원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생리중인가 봐 하며 피한다.

나이든 미혼의 직장 여성이 부하 직원을 야단치면 우스개 소리로 노쳐녀 히스테리라고 한다.

집에서 중년의 엄마가 다 큰 아이들에게 필요이상으로 잔소리를 하고 과민반응을 보이면 갱년기 증상인가보다 하며 놀린다.

남성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까. 젊어서는 며칠 밤을 지새더라도 기운이 펄펄 넘쳐 흐른다.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겁이 없고 뭉든지 자신감이 넘쳐난다. 사랑을 하더라도 이성보다는 맹목적이다.

결혼을 하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에 혼신의 힘을 다해 일에 매달린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자기자신을 되돌아 보게 된다. 사회적 스트레스에 급격히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후자들은 고개속인 남성이라는 말도 한다.

나이든 남성이라면 요즘들어 매사에 힘이 없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것같은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몸이 무겁고 짜증스러워 필요없이 주위사람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부부관계를 한지가 한참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주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나 남성에게 일어나는 신체변화에는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신체내부의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외형적인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여성이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는 알기가 쉽다. 최근 들어 한 달에 두 번씩 생리를 했다던가, 왠지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얼굴이 화끈거린다면 갱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의 몸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대변혁을 맞이한다. 생리가 불규칙하고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신체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것이다.

여성은 2개의 난소를 가지고 있는데 직경이 1.5인치에 불과하다. 한 난소 안에는 무려 10만개의 난자가 들어있으며 모두 20~30만개의 난자가 평생토록 한 달에 한개씩 밖으로 나오면서 정자와 결합하기를 기다렸다 사라진다.

난자를 모두 소비하면 폐경기라고 하여 임신을 준비하던 신체는 갑자기 바람 빠진 공 모양으로 기운을 잃게된다.

30년간의 생리를 통해 항상 임신을 준비하던 신체는 더 이상 나올 난자가 없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것이다.

남성도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처럼 갱년기증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물론 남성도 여성처럼 갱년기를 겪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간에 논란이 많다.

남성도 여성처럼 어느 순간 정자의 생성이 멈춰지면서 고갈이 되고 폐경기 증상

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젊어서와는 달리 중년이 넘어가면서 고환에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뜸해진다. 물론 고환에서 만들어지던 성호르몬의 양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중년이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또한 여성처럼 다양하다.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욕과 성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소하며, 피로 등이 쉽게 온다. 근력이 옛날 같지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아랫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증상들은 여성처럼 성호르몬 감소로 나타난다.

실제 쥐를 통한 실험에서도 고환을 제거한 경우 쥐의 척수에서 음경에 관여하는 신경이 감소하면서 반응이 약해진다. 반면에 남성호르몬을 보충하면 반사작용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음경내에 있는 해면체는 발기를 유발시키는 약물에 대해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약해진다.

재미있는 것은 나이를 먹고 갱년기에 이르면서 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배 나온 사람은 풍채가 좋다고 하여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장님 배라고 하여 남들이 부러워하였다.

최근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배가 나온 장교는 승진에 불리하며 장군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나오는 배는 팔다리의 근육량은 줄어드는데 비해 복근의 감소 등으로 아래로 처져 보기가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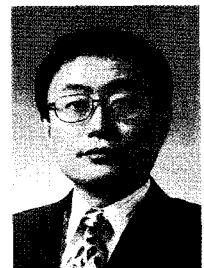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상체 및 복부 비만이 증가되고 근육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험동물을 통해서 입증한 바에 의하면 성호르몬을 투여하였더니 남성다운 체형을 되찾았다고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게 마련이다. '아니, 벌써 정력이 떨어졌나 봐. 어디 정력에 좋은 것 없나.' 단단하고 뻗뻗했던 발기가 옛날 같지 않고 호물호물해진 것이다. 성욕도 없어져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렸다. 최근 들어 남성의 정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성호르몬의 감소에 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인이 밝혀지면 치료는 쉬운 법이다. 더 이상 효과도 없는 정력제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남성호르몬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호르몬을 투여하는 방법에는 먹는 약이나 펩티드, 주기적인 주사요법들이 있다. 한번투여로 효과가 한달씩 지속되는 약도 있다. 호르몬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면 쉬었다가 다시 치료하게 된다. 물론 비노기과에서 전립선 등의 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즘 들어 피곤이 많이 쌓이고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갱년기일 가능성이 높다.

호르몬치료로 무기력한 삶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경미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운동요법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윤수비노기과 원장